

강성열 교수의 성경을 여는 열쇠, 창세기

5강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1.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

(1) 조화로운 창조 세계와 그 절정인 인간

구약성서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엿새 동안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순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와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가 대칭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첫째 날과 셋째 날까지 만들어진 것들은 주로 어떤 본질 내지는 생활공간과 관련된 것들이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것들은 주로 그러한 본질로부터 파생한 것들이거나 또는 특정 공간에 거주하는 생물들을 지칭한다는 점이 그렇다. 이 점은 첫째 날의 빛 창조, 둘째 날의 궁창 창조 및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의 구분, 셋째 날의 바다와 마른 땅과 식물 창조, 그리고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의 창조, 다섯째 날의 물고기와 새의 창조, 여섯째 날의 동물과 사람 창조 등을 비교해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대단히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그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창세기 본문은 또한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창세기 1:26-28의 설명이 그렇다.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주신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climax)에 해당하는 존재임을 밝힌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말씀(창 2:7, 22)에서도 잘 드러난다.

요컨대, 인간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뜻한다. 창세기 1:26-28에 대한 주석이라 할 수 있는 시편 8:4-8은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의 이러한 신분을 매우 아름다운 필체로 묘사하고 있는 바, 이 두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마지막 피조물로, 그리고 창조의 왕관(the crown of creation)으로 만들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연이 결코 그 자체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더 정확하게는 인간이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안식처로, 또는 인간의 다스림을 통해 보존되는 피조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2) 인간에 의해 잘 관리되어야 할 자연

인간이 창조의 정점에 속한 존재로,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왕적인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결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무제한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왕권은 파괴와 수탈을 정당화시켜 주

는 통치가 아니라는 말이다. 만일 그럴 경우, 그것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보기에 “좋은” 것으로 여기시던 하나님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엮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복(福)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음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창조 세계의 보기 좋음과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자연의 파괴와 착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산 것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에덴에서의 삶은 누가 보아도 착취와 수탈 내지는 대결의 삶이 아니라 상호 공존과 의존의 삶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신 후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그에게 주신 과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 2:15). 이 본문에 의한다면 인간은 처음부터 자연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경작하며”) 존재로, 그리고 자연을 지키면서(“지키게 하시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가능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신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은혜요 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관리와 보존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되, 위임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자연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치는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치가 되어야 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적인 통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하여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결코 인간의 것일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주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그러기에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서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2. 자연과 인간의 상호 의존 관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연은 인간의 관리를 받는 것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의존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오랜 옛날부터 자연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 가장 최근에는 과학 기술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처럼 자연은 인간에게 의존하는 것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인간이 자연에 의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만드실 때부터 자연은 인간의 생존 환경으로 인간에게 주어졌음이 이를 증명한다. 인간(“아담”)은 흙(“아다마”)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창 2:7) 그 근본 된 토지를 갈면서 살라는 명을 받았고 죽으면 또한 흙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창 3:17-19). 참으로 창조 세계를 떠난 인간의 삶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1) 인간의 행동과 자연 사이의 상호 관계

구약성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자연과 인간이 서로에게 의존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 주는 바, 그것은 인간의 행동-더 정확하게는 인간의 잘못된 행동 내지는 죄악-이 자연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의 내용은 인간의 운명이 자연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창 3:17-18).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주시는 형벌(창 4:12)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범죄 행태와 홍수 심판의 이유 역시 인간과 자연의 공동 운명을 강조한다. 인간의 범죄는 자연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며 이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범죄한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동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연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다(창 6:7, 11-13). 특히 11절과 13절의 “포악함”(하마스)은 강한 자가 힘없고 약한 자를 짓누를 때 사용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인간의 삶의 터전인 땅을 오염시키고 부패케 하는 주범으로 작용함으로써 인간의 비뚤어진 행동이 자연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하여 12절은 인간의 잘못된 행동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염시킨 탓에, “모든 혈육 있는 자”(콜 바싸르), 곧 새, 물고기, 짐승, 인간 등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행위가 부패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는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행한 억압적이고 반생명적인 조치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주신 생육과 번성함의 약속을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창 1:28; 출 1:7)을 겨냥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러 가지 재앙들은 파라오의 반창조적인 죄악이 우주의 질서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서 생겨난 생태학적인 재앙들이라 할 수 있다.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인간 이외의 피조 세계에 있는 자연 질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재앙 이야기들에 담겨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피조 세계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과 파라오 사이의 싸움에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그 싸움에서 희생의 대상이 되는 자연계의 질서는 한결같이 자신의 정상적인 궤도로부터 이탈한다. 모든 재앙들은 한결같이 인간 이외의 피조물, 곧 물, 땅, 각종 동식물, 공기 등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인간 이외의 자연은 모두가 왜곡된 형태를 가지고서 나타난다.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며, 빛과 어두움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행동이 자연계의 영역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모든 생명에게 혼돈의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공존 관계는 문서 예언자들의 메시지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인 호세아는 4:3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받을 심판을 생태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한다. 정도는 덜하지만 호세아보다 약간 앞서 활동을 시작한 아모스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출애굽 사건 때의 자연 재앙들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강조한다(암 5:8-9; 8:8-10; 9:5-6).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남왕국 유다의 모습을 창조 때의 혼돈과도 같은 자연의 대파국과 관련시킨다(렘 4:23-28).

이와 비슷한 차원의 혼돈 상황은 남왕국 유다를 향한 심판 신탁인 예레미야 9:10-16; 이사야 2:12-17; 24:1-7, 17-23; 32:9-14 등에서도 발견되며, 동일한 심판 신탁에 속한 에스겔

38:19-23에서는 유다 백성의 죄악이 자연계의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것임을 출애굽 사건의 재앙 이야기들과 비슷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참조, 신 28:27-29). 더 나아가서 스바냐는 유다 백성의 죄악이 자연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을 노아 홍수에 대한 설명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습 1:2-3). 예언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러한 메시지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흔히 발견되는 인간계의 질서와 다른 피조계 사이의 공존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2) 심을 통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사귄

인간과 자연이 공동 운명에 속해 있다는 생각은 제도적이고 법적인 차원에까지 확대된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땅)를 묵히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는 안식년과 희년의 두 가지가 있다. 안식년은 본래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땅을 묵히고(출 23:10) 채무를 면제하며(신 15:1-3) 종들을 해방시키는(출 21:2-6) 7년 주기의 국가적인 축제이다. 여기서 땅을 묵힌다는 것은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을 억제하는 한편 땅의 생산력을 회복시킴으로써 인간의 보다 나은 생존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묵혀둔 땅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수확물은 가난한 사람들과 “짐승들”을 위해 내버려두어야만 한다(출 23:10-11; 레 25:2-7).

50년 주기의 희년 제도 역시 땅의 휴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레 25:11-12, 18-22), 이 규정의 일차적인 의미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아울러 토질을 보전하고 지력(地力)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똑같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이차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인간의 과도한 수확 욕구에 지친 땅을 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물(레 25:23)인 땅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지력의 감소는 결국 수확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수확의 감소는 마침내 인간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1주일 간격으로 인간의 노동을 중단시킴과 아울러 자연의 일부인 짐승을 휴식하게 하는 안식일 계명도 부분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공동 운명의 맥락에 속하는 것이다. 노동의 금지와 휴식은 결국 노동에 지친 인간을 회복시키는 치료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하여 가공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생태학적 의미를 가지는 까닭이다. 이로써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창조적인 사귄이 회복되는 바, 안식일 계명은 창조 세계에 감추어진 이 중요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상기시켜 주고 있는 셈이다(출 20:8-11; 23:12; 신 5:14).

3. 종말론적인 기대와 자연 질서의 갱신

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과 자연은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는 창조 직후의 순간부터 깨뜨려진다. 인간의 잘못된 행동과 죄악으로 인하여 자연은 그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한 채로 오염되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며,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인간과 똑같이 저주와 파멸의 고통을 겪는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범죄 행위는 계속해서 자연계의 조화와 질서를 위협하다가 마침내는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현재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파국을 맞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 허망하게 무너지게 하지는 않으신다. 이 점은 파멸 이후의 새로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예언자들의 종말론적인 메시지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 인간의 죄와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새로운 창조 세계가 전개될 것임을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하는 바, 변화된 그 세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기인한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의 왜곡된 관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통해서 그 둘을 모두 벌하시는 것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죄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새로운 창조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호세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우주적인 계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한다(호 2:18). 그 결과 짐승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어 치우던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중단하고, 이제는 평화의 계약에 참여할 자로 그 역할이 바뀔 것이다. 아울러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자녀 출산과 인구 증가(호 1:10-2:1) 및 민족 갱신(3:5) 등의 복을 넘어서서 자연 질서의 회복과 풍요로운 농산물 수확으로 귀결되는 새로운 창조의 복을 주실 것임을 강조한다. 이 점은 2:21-22에 있는 종말론적인 갱신의 메시지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자연 질서의 회복은 전적으로 야웨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본문에 있는 하나님→하늘→땅→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스라엘 등의 순환 구조가 그 점을 잘 보여 준다.

생태학적인 의미를 갖는 호세아의 이러한 구원 신탁은 이사야 11:-19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이 본문에서 이사야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11:1-5),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한 몸을 이룬 가운데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세계로(11:6-9) 묘사한다. 하나님의 구원 내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 이 본문은, 호세아가 예언한 우주적인 계약(호 2:18)과 동일한 새 창조의 맥락에 속한 것으로서, 인간의 구원과 자연 질서의 갱신을 희망하는 생태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야의 이러한 구원 신탁은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65장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선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사 65:17, 25).

생태학적인 종말론의 경향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에스겔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끝낸 후에 그들과 함께 평화의 계약을 맺을 것인 바, 그 계약이 맺어진 결과 악한 짐승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며 이스라엘은 빈들에 평안히 거하면서 수풀 가운데서 아무런 염려 없이 잠을 청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복을 주시므로써 넉넉한 비가 내릴 것이며 산과 땅의 온갖 식물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겔 34:25-29; 36:8-11).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써 주어질 평화의 계약은 땅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 만물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보는 것과도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36:35). 에스겔은 또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비교, 에덴에서 비롯되는 강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메마른 땅들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풍요를 회복할 것이라고 봄으로써(겔 47:1-12),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인간과 자연 모두를 포함한 새로운 창조 질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 터인 시온이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의 중심지가 될 것임을 널리 알리고 있다.

4. 생태 신앙의 실천을 위한 제언

자연은 결코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며 자신 안에 있는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스스로의 힘으로 파괴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생태계 위기는 전적으로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다. 창조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해 왔고 생태계를 교란시켜 왔다. 그 결과 자기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자연이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파괴와 혼돈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생기 있게 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창조 세계가 이제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가장 큰 위협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자연 안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무분별한 자연 파괴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자연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로 어떤 형식으로든 주변 환경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쳐 왔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정(自淨, self-purification) 능력 또는 자기 회복 능력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 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 문명에 기초한 인간의 자연 파괴 행위가 점차 큰 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생태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영향력이 자연 환경의 자정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극대화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환경 파괴와 생태계 위기로 인하여 인류 공동체의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올바르게 통찰하는 일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생태학적인 성서 읽기에서 비롯된 구약성서의 생태 신앙은 생태계의 파괴가 인간의 범죄 행위에 기인한다고 본다. 인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연이 인간과의 친밀한 사귀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 채로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환경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알고 이 일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지만, 그에 앞서 자연을 병들게 함으로써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뉘우쳐야 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책임 의식을 느껴야만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인간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소유물인 자연을 그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지키도록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자에 지나지 않음을 깊이 인식해야 하고, 인간과 자연이 처음부터 공동 운명체로서 상호 의존 관계 속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로 창조되었다거나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는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인식을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치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인간과 자연을 정신-육체 또는 객체-주체의 대결 구조에서 보려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유기적인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사고로 전환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상호 의존을 가능케 하는 소박한 삶의 양식과 지속 가능한 형태의 발전 모델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생태학적인 신앙 윤리를 갖게 함으로써 환경 의식을 생활화하고 생태학적인 사명을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더 이상 고통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와 동역자로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잘 보존된 깨끗한 지구를 떳떳하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나침반 바이블